

## 한국전(戰) 혼혈인의 차별에 관한 기술적(記述的) 연구\*

김통원·윤재영·이종환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군의 국내 주둔 이후 태어난 전쟁 혼혈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차별의 정도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느껴지는 차별 정도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정리(descriptive research)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333명의 혼혈인들을 면접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성별, 연령, 혼혈계통, 단순 취업여부, 학력수준 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차별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으며, 종교, 거주지역, 직업군, 고용형태, 평균소득 등의 차이는 혼혈인이 느끼는 차별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혈인은 보다 심한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거나, 이같은 차별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개인 소득의 제고는 한국전 혼혈인의 차별 해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인 것으로 여겨진다.

■ 주제어: 한국 전쟁 혼혈인, 차별

---

### I. 서론

단일민족의 신화를 지닌 한국인들은 순수 혈통을 숭상하여 ‘서로 다른 종족간의 교배에 의해 생긴 혈통’ 즉, 혼혈을 배척하여왔다. 순혈민족주의에 기반한 우리 사회는 늘 혼(混)혈인을 순(純)혈인과 구분하여 타자화(otherising) 시키고자 하였다(설동훈, 2007; 남영호, 2008).

한국사회에서 이같은 혼혈인 집단은 크게 주한미군관련 혼혈인과 아시아계 한국인(결혼이민자의 자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실 주한미국관련 혼혈인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와 인종·민족 차별로 인하여 우리

---

\*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수탁과제인 “혼혈인 및 그 가족의 욕구및 실태 전국조사”(2009)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와 재구성하였다.

에게서 배제된 존재들이었으며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었으나(박경태, 2008) 최근 결혼이민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상하자 새롭게 조명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그간 한국전 혼혈인에게 가졌던 태도를 반성적 고찰함으로 향후 결혼이민자와 이민자 자녀에 대해서는 그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의미 있는 집단이 된 것이다.

한국전(戰)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둔한 미군(또는 관련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은 보통 3세대로 구분된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시작된 1946년에서 1950년대 말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1세대로 구분하고, 1960년대 초부터 미국 이민법이 개정된 1982년 이전 출생자를 2세대로, 이후를 3세대로 나눈다(인권위원회, 2003).

1세대 혼혈인은 기지촌 성매매가 완전히 산업화되기 이전에, 주로 테이트나 강간 등으로 한국인 여성들이 미군과 관계되어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1954년 혼혈인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도록 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들 혼혈아 중 2,601명이 1961년까지 해외로 입양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19).

2세대 혼혈인은 기지촌이 번창한 시기에 태어난 아동을 의미한다. 사실상 기지촌은 1962년부터 시작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활성화되었다. 당시 미군의 군인들은 1년간 한국에 주둔하면서 마치 혼인한 부부처럼 한국인 여성과 생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혼혈인이 태어났다. 1962년에는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자인 혼혈아동의 이민을 허용했던 미국의 특별이민법이 개정되어 미국입양이 주춤해졌으며, 1972년 2월 17일 우리 정부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의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었다(여성가족부, 2006: 91).

이후 미군의 점진적 축소로 기지촌이 쇠퇴해졌으며, 1980년 이후에 태어난 혼혈인을 3세대로 구분한다. 이때에는 미군과의 결혼으로 인한 이민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에 따라 한국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회피하였고 1982년 10월 22일 미국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Law)의 개정으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재정보증인이 요구되었고 1982년 이후 출생한 혼혈인의 미국 입양 및 이민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렇듯 각 세대의 한국전 혼혈인에 대한 우리 국가의 입양정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2·3세 혼혈인은 공히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남영호(2008)는 이를 일컬어 ‘생물학적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하였다. 사실 혼혈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혼혈인들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존재방식을 항변해야 하는 차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로 1980년에 들어서서야 한국 정부는 한국전 혼혈인이 생모의 호적에 자녀로 입적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이후에도 ‘아버지’란에는 아무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서재송, 1994: 46).

한국전 혼혈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같은 철저한 배제와 차별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에서 교육받아 한국의 모든 관습을 공유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한국 사람이 아니냐?’는 그들의 절규에서 더욱 역설적으로 들어난다(대한기독교서회, 1979: 31).

일반적으로 차별이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낳은 부정적인 행동을 말한다. 의도적이든지 비의도적이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다루는 차별은 고정관념이나 편견과는 달리 행동적 측면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홍대식, 2007).

Sellers and Shelton(2003)도 역시 인종적 차별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노골적(‘튀기’ 등과 같은 경멸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행동)으로 동시에 은근히(경비 등이 빨리 계속 쳐다보는 행동) 퍼져 있는 행동(behaviors)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전 혼혈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같은 차별의 배경에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일반인의 생각에 혼혈인은 매춘이 이루어지는 기지촌을 출생배경으로 아버지의 부재 속에 성장하였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sup>1)</sup>.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매춘을 업으로 하는 여성의 아비 없는 자식은 도덕적·정서적 결함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박경태, 2008).

이러한 차별의 배경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남영호(2008)는 한국의 국민국가 건설과 시민권 부여 및 획득과정에서 발생한 근대적 담론의 하나

1) 여성가족부(2006: 75)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에 태어난 혼혈인은 미군에 의한 강간, 미군과의 사랑에 의한 동거나 결혼 등에 의해서 출생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한다.

로 발생한 역사적 현상으로 한국전 혼혈인의 차별을 구분하고 있다. 즉, 근대 이전에도 한국은 외적과 전쟁을 거듭하였고 일제시대에도 많은 혼혈인이 있었으나(하상락 1962: 249, 남영호2008: 100 재인용) 한국전쟁 혼혈인에 대한 사회생활 전반의 체계적인 배제는 사실 근대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외모나 능력의 차이 이상에서 비롯되는 차별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젠더화된(genderised) 차별이며, 미군을 아버지로 둔 한미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한국전 혼혈인의 차별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사회구조적이며 역사적인 맥락에서 차별의 근원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연구에 그치고 있다. 다만, 인권위원회(2003)와 여성가족부(2006)의 실태조사가 이들의 차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약간 담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서는 출생, 학창시절, 결혼 등 생애주기 가운데 혼혈인들이 느끼는 차별사례를 단순히 제시하는 수준이다. 2003년도 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에 조사대상자 중 34%, ‘주위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에 26%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연구 결과는 혼혈인들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 별다른 함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혼혈인의 차별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전 혼혈인들은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가진 혼혈인이 더 큰 차별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에 실제적인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한 미국 관련 혼혈인은 어떠한 개인적인 특성을 가졌을 경우 더 많은 차별을 느끼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사단법인 국제가족한국총연합<sup>2)</sup>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한국

전 혼혈인 546명을 모집단으로 2008년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수조사를 수행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33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금번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원은 국제가족한국총연합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혼혈인 당사자들이 맡았으며, 설문지의 구성, 자료 수집 절차, 면접조사 등에 혼혈인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관여하도록 하였다.

당사자들을 조사원으로 활용할 경우 자료수집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나, 면접자와 응답자가 서로를 동일시 할 때 가장 좋은 자료수집 결과가 나올 수 있다(최성재, 2005: 398).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2003)와 여성가족부(2006)에 의해 실시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조사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를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자 135명(41.28%), 여자 192명(58.72%)이었고, 이들은 백인계 126명(51.64%), 흑인계 101명(41.39%), 라틴계 10명(4.10%), 기타 5명(2.05%), 모름 2명(0.82%) 등 백인계와 흑인계통의 혼혈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경기(166명, 51.39%)와 서울(70명, 21.67%)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고, 종교는 불교와 개신교가 각각 91명(39.57%)과 96명(41.74%)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고졸이하(85명, 32.69%), 무학(66명, 25.38%), 중졸이하(15.77%), 초졸이하(31명, 11.92%), 대졸이하(22명, 8.46%) 등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현재 응답자의 취업여부는 예가 150명(57.47%), 아니오가 111명(42.53%)으로 현재 취업자가 다소 많았다. 취업자들의 직업을 보면 기타(31명, 21.09%)와 사무직(14명, 9.52%)를 제외하고는 대표적으로 식당, 주방청소/서빙(41명, 27.89%) 및 건설 노동자(23명, 15.65%), 유흥업소 접대원(10명, 6.80%)이 높은 편이었으며, 그나마도 시간제 아르바이트(50명, 34.01%)와 비정규직/계약직(47명, 31.97%)로써,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규직(25명, 17.01%) 및 자영자(12명, 8.16%)보다 고용불안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연령은 최소 18세에서

2) 국제가족한국총연합은 1953년에 결성된 유엔아동자모상조회(혼혈인 어머니들의 모임)를 모태로 하여 1971년에 조직된 한국혼혈인회(초대회장 김영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체임. 2003년 국제가족한국총연합 사단법인 설립(준비위원장 배기철)을 준비하면서 조직을 다시 정비하였으며 2006년 3.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국제가족한국총연합의 설립 목적은 국제결혼가족, 혼혈인가족, 해외입양혼혈인가족, 귀화외국인가족 등 국제가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있다.

최대 85세로 평균 46.41세였고, 현재 응답자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최소 0원에서 최대 950만원까지 평균 86.54만원의 수준이었다(<표 1>, <표 2> 참조).

〈표 1〉 조사대상의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135	41.28	학력 수준	무학	66	25.38		
	여자	192	58.72		초졸이하	31	11.92		
	계	327	100.00		중졸이하	41	15.77		
혼혈 계통	백인	126	51.64		고졸이하	85	32.69		
	흑인	101	41.39		초대졸이하	11	4.23		
	라틴계	10	4.10		대졸이하	22	8.46		
	기타	5	2.05		대학원이상	4	1.54		
	모름	2	0.82		계	260	100.00		
	계	244	100.00		취업 여부	아니오	111	42.53	
지역	서울	70	21.67			예	150	57.47	
	부산	21	6.50			직업	사무직	14	9.52
	대구	4	1.24				전문가	3	2.04
	인천	6	1.86				자영업(농업)	5	3.40
	광주	5	1.55	공장 노동자			9	6.12	
	대전	1	0.31	건설 노동자			23	15.65	
	울산	6	1.86	식당, 주방청소/서빙			41	27.89	
	경기	166	51.39	가정부/파출부			2	1.36	
	강원	5	1.55	유형업소 접대원			10	6.80	
	충북	1	0.31	유형업소 공연예술인			2	1.36	
	충남	8	2.48	체육인			2	1.36	
	전북	16	4.95	연예인			2	1.36	
	경북	10	3.10	종교인			1	0.68	
	경남	2	0.62	가내수공업자			2	1.36	
	제주	2	0.62	기타			31	21.09	
	계	323	100.00	계			147	100.00	
	종교	없음	33	14.35			고용 형태	자영자	12
불교		91	39.57	정규직				25	17.01
천주교		9	3.91	비정규직/계약직		47		31.97	
개신교		96	41.74	시간제 아르바이트		50		34.01	
기타		1	0.43	기타		13		8.84	
계		230	100.00	계		147		100.00	
				계		261	100.00		

주1: 응답의 편중을 고려하여 이후의 분석에서는 혼혈계통(백인계, 흑인계), 지역(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충북/충남), 종교(없음, 불교, 기독교계), 학력수준(초졸이하, 중/고졸, 초대졸이상), 직업(사무직/전문가, 공장/건설 노동자, 식당/주방청소/서빙, 유형업소 접대원/공연예술인, 자영업/가정부/파출부/가내수공업자, 기타/체육인/종교인/연예인), 고용형태(자영자/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같이 재범주를 선행함.

주2: N=333이며 각 사항별로 무응답은 제외함.

〈표 2〉 조사대상의 연령 및 월평균 개인소득

	응답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282	18	85	46.41	17.92
월평균 개인소득(만원)	214	0	950	86.54	90.18

주: N=333이며 각 사항별로 무응답은 제외함.

## 2. 차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별 척도는 1994년 S. P. Harrell이 개발한 The Racism and Life Experience Scales를 활용하였다(Seller et al., 2003; Harrell, 2000). 본 척도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빈도와 정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정도만을 조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차별에 의해 괴롭힘을 받은 정도를 측정하였다. 즉, 1=매우 괴로움, 2=괴로울 정도임, 3=종종 그러함, 4=간간이 그러함, 5=나와는 무관함 등으로 평정척도를 구성하였다.

차별관련 사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0.9216으로 나타났으며, 각 세부 항목별 제거시 신뢰도 역시 전반적으로 저해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로 보면 본 차별 척도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각 해당 항목별로 차별에 가장 시달리는 경우를 1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경우가 5점으로 구성되었는데, 전체 평균 3.98점으로, 일상 생활에서 괴로울 정도로 차별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종종 혹은 간간이 차별을 느끼고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다만, ‘바보 취급하거나 하대함’이 평균 4.36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차별 항목임에 반해<sup>3)</sup> ‘나에게 불쾌한 농담을 건넨’은 평균 3.5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표 3> 참조).

3) 응답의 분포에서 보면 ‘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겁을 냄’과 ‘바보 취급하거나 하대함’ 항목에 ‘나와는 무관함(5점)’의 응답이 가장 많아 차별 척도 중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이었다.

〈표 3〉 차별 척도<sup>4)</sup> 관련 신뢰계수 및 통계량

	제거시 신뢰도	응답분포(명(%))					평균 (표준편차)
		나와는 무관함 (5)	간간이 그러함 (4)	종종 그러함 (3)	괴로울 정도임 (2)	매우 괴로움 (1)	
1)나를 무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0.9128	60 (23.53)	135 (52.94)	48 (18.82)	6 (2.35)	6 (2.35)	3.93 (0.85)
2)나를 존중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취급함	0.9113	57 (22.53)	135 (53.36)	50 (19.76)	5 (1.98)	6 (2.37)	3.92 (0.84)
3)나를 의심하듯 대함	0.9076	90 (35.86)	125 (49.80)	24 (9.56)	6 (2.39)	6 (2.39)	4.14 (0.86)
4)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겁을 냄	0.9164	135 (53.78)	83 (33.07)	24 (9.56)	4 (1.59)	5 (1.99)	4.35 (0.87)
5)공공장소에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거나 따라옴	0.9149	64 (25.60)	144 (57.60)	26 (10.40)	5 (2.00)	11 (4.40)	3.98 (0.92)
6)바보 취급하거나 하대함	0.9127	144 (57.14)	66 (26.19)	34 (13.49)	5 (1.98)	3 (1.19)	4.36 (0.87)
7)나의 생각이나 의견이 가볍게 받아들여짐	0.9145	59 (23.51)	72 (28.69)	108 (43.03)	5 (1.99)	7 (2.79)	3.68 (0.95)
8)나에게 불쾌한 농담을 건넨	0.9131	53 (21.20)	75 (30.00)	97 (38.80)	16 (6.40)	9 (3.60)	3.59 (1.01)
9)별명을 부르거나 귀찮게 하고 모욕함	0.9103	73 (28.97)	128 (50.79)	27 (10.71)	12 (4.76)	12 (4.76)	3.94 (1.01)
차별척도 계(차별수준)							3.98 (0.73)

주1: Cronbach's  $\alpha = 0.9216$ .

주2: '차별척도 계'는 이하의 분석에서 '차별수준'으로 활용됨.

주3: N=3330이며 각 사항별로 무응답은 제외함.

### Ⅲ. 결과분석

응답자들의 차별의식 정도는 응답자의 성별, 혼혈계통, 단순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현재 나타난 차별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성별이나 혼혈계통, 취업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다만, 현재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각 직업 군

4) 총 9개 세부 항목의 차별척도는 요인분석결과, 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하나의 성분만 추출 즉, 세부 요인으로 분리되지 못하였다.



(郡) 별로 차별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체육인/종교인/연예인’ 및 ‘사무직/전문가’는 다른 직종에 비해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유형업소 접대원/공연예술인’ 및 ‘자영업/가정부/파출부/가내수공업’ 종사자는 보다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자영자/정규직’ 이 다른 고용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4〉 성별, 혼혈계통, 취업여부별 차별정도 비교

		성별		혼혈계통		취업여부	
		남자	여자	백인계	흑인계	예	아니오
차별의식 정도	빈도	92	160	75	85	108	147
	평균	3.92	4.00	4.05	3.88	3.89	4.04
	표준편차	0.84	0.67	3.88	0.81	0.80	0.68
	<i>t</i> ( <i>p</i> )	-0.733(0.465)		1.250(0.213)		-1.538(0.125)	

\*<0.1 \*\*<0.05 \*\*\*<0.01

〈표 5〉 직업 군(郡) 및 고용 형태별 차별정도 비교

		직업 군(群)						고용 형태		
		사무직/ 전문가	공장/건설 노동자	식당/ 주방청소/ 서빙	유형업소 접대원/ 공연예술인	자영업/ 가정부/ 파출부/ 가내수공업	기타/ 체육인/ 종교인/ 연예인	자영자/ 정규직 (A)	비정규직/ 계약직 (B)	시간제 아르바이트 (C)
차별의식 정도	빈도	17	32	41	12	8	34	37	45	50
	평균	4.13	4.10	3.91	3.65	3.69	4.29	4.22	4.03	3.82
	표준편차	0.80	0.78	0.46	0.55	1.14	0.57	0.86	0.66	0.46
	<i>F</i> ( <i>p</i> )	16.084*** (0.007)						3.950** (0.022)		
	Duncan's test							(C) · (B) < (B) · (A)		

\*<0.1 \*\*<0.05 \*\*\*<0.01

주1: <표 IV-4>의 취업여부에서 ‘예’를 선택한 응답자에 국한된 결과임.

주2: 직업 군(郡)의 경우, 일부 응답범주에서 N<30임에 따라 Nonparametric 기법인 Kruskal-Wallis Test로 차이를 검정함. 따라서 검정통계량은  $\chi^2$ 임.

응답자들의 종교와 학력수준에 따라 각각 차별 정도를 비교해보면 <표 6>과 같다.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학력수준과 달리 종교에 따라서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 종교를 가진 응답자는 그렇지 못한 응답자에 비해 차별을 덜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갖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상당 정도 차별을 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종교 및 학력수준별 차별정도 비교

		종교			학력수준			
		없음 (A)	불교 (B)	기독교계 (C)	무학 (a)	초졸이하 (b)	중/고졸 (c)	초대졸이상 (d)
차별 의식 정도	빈도	60	89	103	66	30	119	37
	평균	3.76	3.88	4.15	4.01	3.89	3.89	4.20
	표준편차	1.04	0.55	0.75	0.36	0.66	0.84	0.86
	$F(p)$	4.909*** (0.008)			1.959 (0.121)			
	Duncan's test	(A) · (B) < (B) · (C)			·			

\* &lt; 0.1 \*\* &lt; 0.05 \*\*\* &lt; 0.01

응답자들의 현재 거주 권역별로도 차별 정도가 차이를 보였다. <표 7>에 의하면, 서울 및 인천/경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혼혈인들이 차별을 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강원 등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느끼는 수준이 덜 하고 있었다.

〈표 7〉 권역별 차별정도 비교

		권역					
		서울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강원	인천/경기	광주/전북/ 제주	대전/충북/ 충남
차별의식 정도	빈도	22	28	17	157	21	4
	평균	3.76	4.43	4.56	3.85	4.07	4.08
	표준편차	1.03	0.50	0.50	0.73	0.34	0.40
	$\chi^2(p)$	31.869*** (0.000)					

\* &lt; 0.1 \*\* &lt; 0.05 \*\*\* &lt; 0.01

주: 일부 응답범주에서 N(30임)에 따라 Nonparametric 기법인 Kruskal-Wallis Test로 차이를 검정함. 따라서 검정통계량은  $\chi^2$ 임.

한편, 응답자의 연령과 월평균 소득이 각각 차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표 8>과 같다. 응답자 연령은 차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월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었다.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차별 정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표 8〉 연령 및 월평균 소득이 차별정도에 미치는 영향

	B	B	$\beta$	$t(p)$	$F(p)$	$R^2$
차별 의식 정도	(상수)	4.033		30.870*** (0.000)	0.194 (0.660)	0.028
	연령	-0.001	-0.028	-0.441 (0.660)		
차별 의식 정도	(상수)	3.828		58.888*** (0.000)	11.782*** (0.001)	0.232
	월평균 소득	0.002	0.232	3.433*** (0.001)		

응답자의 연령을 1세대(1962년 이전), 2세대(1963년~1982년), 3세대(1983년 이후)로 구분하여 각 세대별로 차별수준의 차이를 검증해보면, <표 9>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9〉 혼혈 세대별 차별정도 비교

		혼혈 세대		
		혼혈 1세대 (1962년 이전)	혼혈 2세대 (1963년~1982년)	혼혈 3세대 (1983년 이후)
차별 의식 정도	빈도	151	59	43
	평균	3.94	3.94	4.16
	표준편차	0.70	0.87	0.65
	$F(p)$	1.491 (0.227)		
	Duncan's test	.		

\* < 0.1    \*\* < 0.05    \*\*\* < 0.01

#### IV. 논의 및 결론

응답결과 한국전(戰) 관련 혼혈인의 성별, 연령, 혼혈계통, 단순 취업여부, 학력수준 등에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느끼는 차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종교, 거주 지역, 직업군, 고용형태, 평균소득 등의 차이는 혼혈인이 느끼는 차별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울 등의 수도권에서 거주하면서 아무런 종교 없이 유흥업소 종사자나 파출부로서 시간제 근로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 혼혈인이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해 특별히 연구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인계와 흑인계 사이의 차별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 보통 백인들을 통한 학습효과로 피부색이 검은 흑인 혼혈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이 훨씬 심할 것으로 여겨, 흑인 혼혈인은 더욱 가혹한 차별을 견뎌야 할 것으로 여겼던(김경태, 2008: 221)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산술적인 통계량으로 볼 때 흑인계의 차별인식 정도(3.88)가 백인계(4.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한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둘째, 1·2·3세대 혼혈인 간의 차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다. 1세대 혼혈인의 경우 마을에서 다른 혼혈인들과 어울리며 자랄 수 있었던 2세대 혼혈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립감을 느끼면서 성장하였고, 2세대 혼혈인의 경우 미혼의 장기 주둔 미군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아(인권위원회, 3003:12-13), 사회의 차별에 대한 두 세대 간 반응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이 또한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특성 중 무엇보다도 경제적 생산성이 차별을 느끼는 정도에 가장 크게 관련된 요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를 연구한 유승무·이태정(2006)의 결과와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출신국의 경제력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질적 조건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인정 척도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는 경제적 생산성이 떨어진 혼혈인에게 보다 더 권위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에 동질된 혼혈인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다 더 큰 차별에 노출되는 현상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전 혼혈인의 차별을 해소할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원서비스는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인권위원회(2003) 조사에서 혼혈인이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기능교육”(44.4%)이라고 응답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며, 여성가족부(2006) 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내용에 “경제적 지원”(58.5%)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취업상담”(16.8%) 1 순위로 응답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혼혈인은 그렇

지 않은 혼혈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혼혈인이 경상도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혼혈인에 비해 차별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심과 차별 스트레스 그리고 거주지역과 차별 스트레스의 상관성은 내·외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실험연구를 통한 더욱 심도 있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통원. (2006). 국제가족에 대한 차별과 이해: 사회역할의 정상화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혼혈인식과 국제결혼가족의 실상과 대책 정책세미나(2006.4.5) 자료집」: 11-37.
- 국가인권위원회. (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 남영호. (2008). 주둔지 혼혈인과 생물학적 시민권. 「한국문화인류학」, 41(1): 91-128.
- 대한기독교서회. (1979). 이 땅의 혼혈인에게도 해방을. 「기독교사상」, 254(8): 27-42.
- 박경태. (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 박동성. (2008). 일본과소지역에서의 국제가족의 형성과 지역사회의 대응: 야마가타현의 사례분석. 「한국문화인류학」, 41(1): 129-165.
- 서영훈. (2006). 「혼혈인 문제의 실상과 대책. 한국사회의 혼혈인식과 국제결혼가족의 실상과 대책 정책세미나(2006.4.5) 자료집」: 5-9.
- 서재송. (1994). 혼혈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사목」, 191(12): 44-56.
- 설동훈. (2007).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인문연구」, 52: 125-160.
- 여성가족부. (2006). 「미군관련 혼혈인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방안」.
- 유승무·이태정. (2006).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9(2): 275-311.
- 최성재. (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나남출판.
- 홍대식. (2007).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 Harrell, S. P. (200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racism related stress: Implications for the well-being of people of col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 42-57.
- Kai, Joe. and Clive Hedges. (1999). Minority ethnic community participation in needs assessment and service development in primary care: perceptions of Pakistani and Bangladeshi people about psychological distress. *Health Expectations*, 2: 7-20.

Sellers, M. Robert. and J. Nicole Shelton. (2003). The Role of Racial Identity in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79-1092.

---

**김통원(金統元)**: 미국 Florida주립대학교 사회사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이며, 정신장애인 및 소수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청소년과 집단치료기법』(2005),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2003), “Social Role Valorization Theory & Club house Standards.”. <Asian Clubhouse Conference> (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방법론”(2004) 등이 있다(twkim@skku.edu).